

근대의 타자

: 『길을 잃은』과 『파스쿠알 아길레라』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와 공간의 관계

오민욱

(전북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 자연주의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에우헤니오 캄바세레스 (Eugenio Cambaceres)와 멕시코 모데르니즘의 주요 작가인 아마도 네르보 (Amado Nervo)의 소설 중 『길을 잃은 Sin rumbo』(1885)과 『파스쿠알 아길레라 Pascual Aguilera』(1892)를 비교한다. 두 작품의 주요 인물이 가진 전통적 기독교관과 신진 도시 엘리트 사이의 중간자적 설정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섹슈얼리티와 국가 근대성의 관계에 관한 서술자의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근대화 과정의 가장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도시와 지방(농촌)의 관계 재현이 질병 담론을 바탕으로 정상/비정상의 도식을 구획하는 허구적 기준으로 작동함을 보여주고, 문명과 야만의 도식이 구축, 확장, 붕괴하는 양상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근대성, 공간, 섹슈얼리티의 재현이, 작가가 상상한 근대 국가 기획을 위한 소설의 역할을 보여주는 주요한 서사 전략임을 밝힌다.

주제어 : 자연주의, 모데르니즘, 질병담론, 성적 일탈, 도시와 지방

I. 들어가며

19세기 말 라틴아메리카의 지식 담론은 “비정상적” 섹슈얼리티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러한 현상에는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퇴화이론과 사회진화론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담론들은 당대의 사회적 약

자들을 시민 공동체 밖에 배치하여, 자유나 평등 개념을 바탕으로 확립되어야 할 국가 정책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주요한 장치로 활용되었다.¹⁾ 근대화를 추진하던 주요 지식인 그룹을 형성하거나, 이들과 교류하며 지식인 사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자연주의 및 모데르니즘도 작가들 역시 근대적 병리학에 기반한 섹슈얼리티 담론을 수용했고, 이를 작품의 인물과 플롯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²⁾ 그러나 타자를 배제하는 담론을 전유했다고 해서, 이 작품들이 권력 담론의 근대화 기획과 같은 지향점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는 않는다.³⁾ 이는 작가 개인의 관점 차이 및 문학 그룹(자연주의와 모데르니즘)의 지향점 차이로 인해 발생

-
- 1) Nouzeilles(2000:174)은 히스터리 담론이 19세기 말 아르헨티나 사회를 통제할 양상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공위생 정책 분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최근 다양한 연구가 푸코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의학의 역할에 대해 다뤘다. 이 연구들에서 역사가와 문화 비평가들은 전염병에 대한 환상이 많은 공공위생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시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의 주된 목표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도 말이다. 이 중에는 빈민층(Recalde), 이민자(Vezzetti), 성노동자(Guy), 동성애자(Salessi) 등이 있다. 지배층 부르주아의 시각에서, 육체의 과잉과 정념의 관계로 인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성적 소외층은 모두 육체적, 도덕적 타락의 무한한 형태에 대한 확실한 전염원이자 온상이다.”
- 2) 19세기 말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흐름으로 자연주의와 모데르니즘(Modernismo)을 들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시가 각각의 주요 장르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 재현과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추구했다는 평가로 인해, 이들은 비교적 독립된 영역으로 연구됐다. 하지만, 모데르니즘 연구가 크로니카(crónica), 단편, 소설 등 서사 장르로 확장되면서, 실증주의를 비롯한 당대 주요 정치·과학 담론과의 관계를 다면화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Aching 1997, Nouzeilles 1997, Jrade 1998, Irwin 2006). 나아가 기존에는 소수자에 대한 통제와 제약에 관한 관점을 공유했다고 평가받던, 당대 병리학 담론과 자연주의 작품의 관계를 다면화하는 연구도 등장했다(Nouzeilles 1996).
- 3) Nouzeilles(1997:150-151)은 자연주의 소설과 모데르니즘 서사가 공통으로 “정상과 병리(lo normal y lo patológico)”의 수사를 전유하면서, 전자는 “주변적 신체”를 “인종적·성적 차이”로 구분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후자는 자기 스스로 (“병든 작가의 몸”)를 “주변화”하면서 “병리적 수사의 위계를 전도하고자 했다”고 구분한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질병학 담론이 허구적 서사의 틀로 재현될 때 생기는 내적 균열이라 평가할 수 있다.⁴⁾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 자연주의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에우헤니오 캄바세레스(Eugenio Cambaceres)의 『길을 잃은 Sin rumbo』(1885)과 멕시코 모데르니스모의 주요 작가인 아마도 네르보(Amado Nervo)의 『파스쿠알 아길레라 Pascual Aguilera』(1892)를 비교할 것이다. 이 두 작품은 식민지 시대부터 근대화 시기까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주요한 기득권 세력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던 지방의 대농장 소유주를 주요 인물로 삼는다. 하지만 이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은 독립운동이나 내전에 참여했던 아버지 세대가 아닌, 그 뒤를 잇는 자녀 세대로 설정된다. 이들은 근대화된 도시에서 교육받고, 근대화로 인해 변화한 도시에서 성장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 기득권층과 신진 도시 엘리트 사이의 중간자적 설정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인물들의 “일탈적” 섹슈얼리티를 구축하는 서술자의 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근대성 담론의 가장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도시와 지방(농촌)의 관계와 질병 담론이 맺는 다양한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주의와 모데르니스모 작품의 섹슈얼리티 재현이 권력 담론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추종, 또는 저항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 자의적이고 모순

4) Nouzeilles(1996:25)은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의 국민 소설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 낭만주의나 사실주의 작품과 대립적으로 인식되던 자연주의의 위치를 다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내 연구 가설은 자연주의 소설이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필사적으로 모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플롯의 논리가 『마리아』와 같은 소설이 전파했던 사회적·정치적 유토피아에 의문을 제기했음은 물론 때때로 반박했다는 것이다.” 한편, Jade(1998:17)은 실증주의와 모데르니스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실증주의는 대부분의 모데르니스모 작가들에게 양가적 태도를 불러왔다. 그들은 과학, 그 혁신들, 진보에 대한 그 기여를 존중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의 궁극적 척도로 삼는 것은 거부했다”. 이 두 연구에서 보여주듯 자연주의와 모데르니스모가 당대의 주요 지식 담론이었던 실증주의에 기반한 질병 담론과 맺은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나아가 어느 서사 작품이 자연주의에 속하는지 모데르니스모 작품인지 정형화하여 정의하기도 어렵다.

적 측면을 가졌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근대성, 공간, 섹슈얼리티의 재현이 서술자가 근대적 국가 기획 담론의 담화자로 발화하기 위한 주요한 서사 전략 중 하나로 작동함을 밝히고자 한다.

II. “퇴화된” 남성: 도시의 악덕과 근대화의 위험성

플롯의 구성과 등장인물의 특징을 비교할 때, 『길을 잃은』과 『파스쿠알 아길레라』는 몇 가지 두드러진 유사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두 작품의 주요 인물인 안드레스(Andrés)와 파스쿠알(Pascual) 모두 지방의 농장을 상속받은 부유층이며, “성적 일탈”을 빈번히 저지른다는 것이다. 둘째로, 두 인물 모두 여성 인물에 대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로 초래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은 지방(농촌)이며, 이들의 “비정상성”이 근대화된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성적 일탈, 근대성,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재현할 때, 다양한 차이점도 가진다.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두 인물의 특징이 가지는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⁵⁾

캄바세레스의 『길을 잃은』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1부는 1

5) 최은경(2015:129-130)은 캄바세레스의 『길을 잃은』가 도밍고 F. 사르미엔토(Domingo F. Sarmiento)의 “문명과 야만” 도식을 전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지방(농촌)은 “재생”의 공간이고, 도시는 “악”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또한 도나타와 안드레아는 지방의 긍정적인 특징을 제시하며, 아모리니는 도시의 악덕을 상징한다. Brand(2007:368-367)은 도나타와 아모리니를 시골과 도시라는 공간의 상징으로 환원하고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은 “안드레스의 정신 상태와 그가 다른 인물과 관계 맺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즉 시골과 도시 모두 비판주의적 관점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 “시골-도시” 이분법의 도식에서 벗어난 재현이라는 것이다(Brand 2007:374).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 비판적으로 동의하면서, 근대성을 둘러싼 인물과 공간의 관계가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장~32장, 2부는 33장~ 45장으로 이루어진다. 1부의 주요 플롯은 주인공인 안드레스가 지방과 도시를 오가며 성적 일탈을 저지르고, 이를 후회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작품 초반 안드레스는 자신의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충실한 농부, 레히노(Regino)의 딸인 도나타(Donata)를 겁탈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도시로 떠나버린다. 도시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오페라 가수인 아모리니(Amorini)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 관계에도 금방 싫증을 느낀다. 불륜조차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하자 안드레스는 불현듯 도나타가 임신한 아이에게 애착을 느끼며, 농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도나타는 안드레아(Andrea)를 낳고 출산 후유증으로 이미 사망했고, 이에 안드레스는 딸을 소중히 키워야겠다고 결심한다. 2부는 1부에서 2년여가 흐른 시점으로 시작한다. 안드레스는 딸의 양육에 힘쓰고 1부에서 시달리던 내적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된 듯 묘사된다. 하지만 안드레아는 갑작스레 병에 걸리고, 안드레스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한다. 이에 안드레스가 절망해 있을 때, 그에게 원한을 가진 노동자가 농장에 방화하고, 이로 인해 주인공은 최후를 맞이한다.

이 작품에서 공간의 특징과 이동은 플롯을 진행 시키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1부의 1장과 2장은 지방의 상징적인 두 공간을 묘사하는데, 전자에서는 농장에서 양모를 생산하는 장면을 상세히 제시한다. 이 때, 털을 빼앗기는 양과 그 일에 종사하며 착취당하는 농장 노동자의 삶을 병렬로 제시한다.⁶⁾ 2장에서는 농장주의 저택이 묘사되는데, 이 장면을 구성하는 주된 분위기는 고귀함과 평안함이다. 이 장의 마지막 부

6) Esposito(2005:30)는 이 장면의 특이점을 농촌의 공간이 “더는 사막이나, 국경이 아닌 경제·사회적 변화 과정의 결과물”인 “양털 깎는 오두막”(galpón de esquila)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즉 농촌이 가우초와 연관되는 소 목축 대신, “양떼, 여성, 이민자, 의사가 거주하며, 이제는 남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칼 대신 권총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제시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기존의 가우초로 제시되는 야만의 공간 혹은 낭만화된 공간이 아닌, 당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근대화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공간으로 지방(농촌)을 구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에서 서술자의 초점은 저택 발코니에 서 있는 인물에게 맞춰지는데 그가 바로 농장주이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안드레스이다. 이 인물은 삶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지만, 허무주의로 귀결되는 내적 갈등을 반복한다. 1장과 2장의 구성은 농촌 지역의 계층 간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하며, 농장 노동자들의 고된 삶의 모습을 부각한다. 이는 안드레스의 허무주의적 고뇌가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순환적인 성격임을 돋보이게 한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안드레스의 욕망과 폭력에 희생된 도나타와 레히노의 삶이 제시되는데, 주인공의 자기 만족적 성향이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정신적·윤리적 문제점에 더해, 서술자는 안드레스의 외모를 묘사할 때도, 그에게 다음과 같은 “비정상성”을 부여한다.

“자신의 방에 있던 동향의 열린 발코니에, 해먹 의자 위에 길게 뻗어 누운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금발이었고, 눈썹 사이에 깊은 세로 주름이 파여 뒤로 밀린 듯 보이는 이마를 가졌다. 그의 눈은 푸르고 다정하면서 끈적끈적했다. 그 시선이 가진 신비하고 깊이 있는 끌림에 영향을 받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눈이었다. 둥글고 길게 자란 수염은 이미 흰 털로 덮여있었음에도, 그는 이제 막 인생의 중간쯤을 갓 넘겼을 뿐이다. 그는 안드레스다.” (Cambaceres 2005:4)

위 인용에서 나타나는 안드레스의 외모적 특징은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크리오요(criollo)라는 점과 나이에 비해 노쇠했다는 점이다. 안드레스는 도나타와 아모리니 같은 여성 인물들이 호감을 느낄 정도의 외모를 가졌지만, 이는 건장함이나 활발함 같은 남성성과는 거리가 있게 설정된다.

3장에서는 주인공인 안드레스의 성격과 성장배경이 주로 묘사되는데,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어머니의 극진한 애정을 받으며 자란다. 하지만, 안드레스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기만 하고, 그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모든 현실에 대해 “권태(fastidio)”를 느끼는 인물로 표현

된다(Cambaceres 2005:6). 이러한 성향은 쾌락, 지적 욕망 등 삶의 다양한 층위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법학, 의학, 예술 중 그 어느 학문도 진중하게 매진하지 못하고, 도박이나 여성 편력 등 어떠한 자극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안드레스의 비행과 일탈은 단순한 성격이 아닌 병증으로 묘사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신체에 있는 깊은 불균형이었다. 성격의 불균등, 갑작스럽게 근거 없는 변덕, 아무 이유나 원인 없는 분노, 이런 존재의 사소하지만 수많은 불쾌함이 그를 격분시키며 분노가 극에 닿게 하고, 그의 사고력에 기이한 혼란을 만들었다.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정신 상태였다.” (Cambaceres 2005:12). 이 묘사에서 서술자가 병증으로 진단하는 안드레스의 “불균형”은 그를 우울하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기에 이른다.

“자신의 어두운 비관주의에 내던져진 안드레스는, 위대한 근대의 파괴자들에게 영혼이 침식된 채, 새로운 교리들의 차갑고 끔찍한 <허무>에 의해 정신은 잠식되었고, 그 자신이 겪은 어마어마한 양의 슬픔으로 인정받은 눈을 가진 채,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고독과 고립으로 끌고 갔다. 그는 마치 죽은 이처럼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집의 말 없는 벽들에 갇힌 채, 온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지냈다. 그가 살던 시기의 파괴적인 흐름에 휩쓸려, 자기 스스로든 혹은 타인이든 간에,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사랑은 감각의 어리석은 부름이었고, 우정은 비열한 착취였으며, 애국심은 야만의 습관 혹은 잔재이고, 관대함, 헌신, 희생은 환상 혹은 괴물 같은 자기혐오에 불과할 뿐이며, 정직도 계산에 불과하고, 미덕은 기회의 부족이라고 여겼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쓰디쓴 회의주의의 용서 없는 심판 앞에서 은혜를 찾을 수 없었다.” (Cambaceres 2005:12)

서술자는 안드레스의 비윤리적 성향을 형성한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진단하는데, 이를 허무주의라고 평가하며 근대화와 함께 도래한 인식론적 변화로 해석한다. 동시에 이러한 내면적 고뇌의 묘사

양상은 당대의 질병학 중 히스테리 담론에서 제시하는 병증과도 유사점을 보인다.⁷⁾

4장에서 일상을 권태로워하던 안드레스는 자신의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레히노의 집에 방문하고, 아버지 없이 혼자 있던 그의 딸 도나타를 강간한다. 이 장면 구성의 특이점은 안드레스와 도나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사건이나 설정 없이 성폭력이 급작스럽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안드레스가 도나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나 욕망 없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을 강조하는 설정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안드레스의 반사회적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⁸⁾ 여기에 출산 후 도나타의 죽음은 도시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타락한 사회 엘리트가 아르헨티나 자연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메스티소 여인을 폭력으로 짓밟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징적 설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네르보의 『파스쿠알 아길레라』 역시 1부와 2부로 구성되며, 전자는 네 개의 장으로, 후자는 열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부유한 아버지 파스쿠알은 젊은 시절 도시의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로 인해 신경

7) Nouzeilles(2003:53)은 19세기말 아르헨티나의 히스테리 담론이 가졌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히스테리]는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정치적 태도를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그 불명확한 정체성과 병인이 다른 질병들의 허위 기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존] 규율적 지식 생산의 핵심에 있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육체와 정신, 객체와 기호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면서, 히스테리라는 전염병은 어떤 틈, 즉 인식론적 경계 지대를 만들었다. 그곳에는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전제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제시한 히스테리의 기호학적 특성은 특정한 기의가 없이 다른 기호의 의미를 모아놓은 허위의 기표라는 점이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시를 제시하겠지만 안드레스의 고민은 특정한 대상이나 원인이 없는 연쇄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히스테리를 구성한 기호학적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8) Nouzeilles(1996:31)은 아르헨티나 자연주의 소설들이 퇴화이론(Degeneration theory)의 논의를 수용하였고 다양한 양상으로 소설 속에서 작가들이 상상한 사회 문제를 담아내는 모습을 분석했다. 그중 “지배층(governing class)”은 “오랜 정치적 혼란과 내전의 역사, 근대화된 도시 생활의 부작용, 적절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계층 내에 과도한 감각을 가진 개인을 만들었고 이들이 광기의 벼랑에 위치하게 될 수 있다”는 관점이 형성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관점을 가진 대표작 중에 하나로 『길을 잃은』을 꼽았다.

쇠약을 얻게 된 남성이다(Nervo 1920:41). 또한 주인공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로 단명한다(Nervo 1920:53). 사생아이자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가진 파스쿠알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아들 파스쿠알이 태어난 뒤, 뒤늦게 자신의 방탕한 삶을 후회한 아버지 파스쿠알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프란시스카(Francisca)와 결혼한다. 프란시스카가 파스쿠알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쿠알은 어렸을 때부터 절제되지 않은 성욕으로 인한 비행을 저지른다. 이에 부모는 자신들이 소유한 농장에 믿음직한 관리인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아들을 농장에 주기적으로 머물게 한다. 하지만, 파스쿠알은 관리인의 눈을 피해, 농촌 여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유혹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젊고 아름다운 레푸히오(Refugio)라는 여성만 파스쿠알의 유혹을 거부한다. 이후 레푸히오가 약혼자인 산티아고(Santiago)와 결혼하자 질투심에 정신 착란에 빠지게 된 파스쿠알은 술에 취해 양어머니인 프란시스카를 강간한다. 이날 새벽 프란시스카는 예배당에 가서 파스쿠알과의 관계에 일순간이나마 쾌락을 느낀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는데, 바로 직후에 파스쿠알이 갑자기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녀는 급히 하녀에게 명령하여 의사를 찾아 보내지만, 파스쿠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프란시스카가 평생 속죄할 결심을 하는 장면이 묘사되며 작품이 끝난다.

『길을 잃은』의 도입부가 양모 산업에 종사하는 팜파스의 농장을 묘사하고 있다면,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도입부는 밀과 옥수수를 경작하고, 소 목축에 종사하는 농장과 그 주변에 형성된 촌락을 묘사한다. 이 작품의 1부 1장은 주인공인 파스쿠알과 레푸히오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젊고 건강한 여성으로 묘사되는 레푸히오에게 파스쿠알이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한다. 오렌지 나무 위에 올라간 레푸히오의 다리를 보고자 아래에서 기다리는 파스쿠알을 묘사하며, 서술자는 주인공이 오직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Nervo 1920:21-22). 그는 나무에서 내려온 레푸히오를 유혹하려 하지만, 이내 거절당한다. 주인공이 실

망하여 집으로 돌아가자, 약혼자인 산티아고가 갑자기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인물인 파스쿠알, 레푸시오, 산티아고의 외모와 성격이 제시된다. 먼저 파스쿠알은 “25살의 덩치가 큰 청년이고, 몸은 굵고, 금발이며, 붉은빛 얼굴에 주근깨가 많았다. 다리는 휘어지고 볼품없었던 그는 금속 체인 장식의 소리를 내며 나무의 몸통 쪽으로 나아갔다.”(Nervo 1920:21)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그의 외모가 건강한 남성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길을 잃은』의 안드레스 역시 나이에 비해 생기를 잃은 외모이지만, 그 정도가 그의 성적 매력을 손상할 정도라고 묘사되지는 않는다. 반면,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파스쿠알은 신체와 정신에 특정한 “결합”이 있는 인물이고 이는 유전적 요인의 결과물에 가깝게 제시된다. 정리하자면, 안드레스의 경우 우울함과 염세주의에 빠져 도덕적 일탈을 일삼는 정신(혹은 영혼)의 “비정상성”이 더 강조되는 반면, 파스쿠알은 신체와 정신 모두 “정상성”에서 확연히 먼 인물로 그려진다. 이후 1부 3장에서 파스쿠알의 외모가 앞선 장면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되며, 이러한 특성은 더욱 강화된다.

“그의 머리카락은 옥수수수염의 불그스레한 색깔이었고, 눈은 휘몰아치는 샘물처럼 혼탁한 푸른색이었으며, 코는 들창코에, 두꺼운 입술은 벌어져 앞니와 송곳니가 드러났다. 뺨에는 주근깨가 뿌려져 구아바 껍질 같았다. 그의 이런 외모는 너무나 관능적이어서 그의 옆에만 있으면 그 어떤 머저리도 [그보다] 뒤쳐져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Nervo 1920:52)

이 인용에서는 첫 번째 외모 묘사보다 파스쿠알의 “기괴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어법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이러한 외모적 특징을 조롱하는 서술적 관점을 보인다. 『길을 잃은』의 서술자는 반복적으로 주인공 내면 갈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때 주인공의 내면 독백이 갑자기 삽입되거나, 주인공의 관점과 유사한 위치에서 내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러한 서술 전략은 병리학 담론에 기반한 “비정상

성”을 인물에게 부여하지만, 완전히 타자화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공 내적 갈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전달하여, 그의 내면세계를 상세히 제시하는 결과를 만든다. 하지만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파스쿠알에게 서술적 거리를 유지하며,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하거나 병적으로 분노했을 때 제한적으로 파스쿠알의 시점으로 전환한다.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서술자는 외모 특성과 함께 파스쿠알의 품행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상세히 설명한다. 파스쿠알의 문제는 주로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한 과도한 성욕과 연관된다. 이는 안드레스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교사는 회초리와 다른 훈육 도구들의 도움으로도,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 많은 히스테리 징후를 조기에 보이는, 아이의 머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이는 신의 뜻인 듯했다. 아이는 감각적 불안정과 관능적 강박에 해를 입곤 했다. 그는 속임수와 위장을 즐겼고, 그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질투심을 보였다. 그는 자주 우울함을 겪다가도 또 광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넘어가곤 했다. 쉽게 분노했고, 비교적 어렸음에도 야성적인 성적 충동에 사로잡혔다.” (Nervo 1920:45-46)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파스쿠알의 특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각과 욕망에 취약했고,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술자는 “히스테리(histerismo)”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파스쿠알의 상태를 묘사한다.⁹⁾ 이는 당대에 여성의 고유한 질병인 것처럼

9) 이후에도 히스테리라는 표현이 파스쿠알을 묘사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데, 양어머니인 프란시스카(Francisca)를 강간하기 전 레푸히오에 대한 욕망으로 광증에 빠졌을 때 “히스테리적인 웃음(risa histérica)”(Nervo 1892: 102), 이로 인해 갑자기 사경을 헤멜 때 “정신적 히스테리(la histeria mental)”(Nervo 1892:120)라는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Nouzeilles (2000:179)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이제 히스테리는 여성에게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운한 사건이나 감정적 동요”로 인해 “도덕적 혹은 신체적 유기체”가 변형된 남성들에게도 일어날

인식되어 여성의 몸을 대상화, 시각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던 히스테리를 남성 인물인 파스쿠알에게 부여한 것이다.¹⁰⁾ 이러한 설정을 통해 남성 관찰자(의사)와 관찰 대상(여성 환자)의 권력 구조는 변형되며, 파스쿠알의 외모, 행위, 도덕적 일탈, 질병은 독자들에게 하나의 서술적 “흥밋거리”로 대상화된다. 『길을 잃은』의 서술자는 안드레스를 허무주의에 기반한 내적 갈등을 끊임없이 겪는 “비정상적” 상태로 그리지만, 네르보는 파스쿠알의 “비정상성”을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묘사한다.¹¹⁾ 두 경우 모두 큰 틀에서 당대의 가장 대중적 관심

수 있다고 인식했음을 제시했다. 이처럼 남성 히스테리에 대한 문화적 맥락의 범위는 넓고, 종류는 다양하다(Micale 2008 참조).

10) Nouzeilles(2000:178)는 19세기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판된 다양한 사료들에서 히스테리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음을 제시한다. “『히스테리』(1888)에서, 아르토로 페란드(Arturo Ferrand)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상생활의 열병과도 같은 리듬 때문에 이 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목격하거나 진료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나 의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pp. 33-4). 1892년에는, 비슷한 경고와 함께, 여성 의사인 엘비라 라우손 데 데예피아네(Elvira Rawson de Dellepiane)가 당대 ‘히스테리, 간질, 신경 병자가 아닌 부에노스아이레스 여성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p. 40)고 관찰했다”. 또한 이 병의 원인이 대체로 근대화로 인한 변화, 특히 공적영역에서 인구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발생했다고 인식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이 역병은 이론적으로 생식적 과잉(혼전관계, 자위행위), 사치와 복장의 요염함, 공적 공간(대학, 살롱, 극장, 산책로, 공장) 출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 그리고 지적인 노력들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적인 노력은 ‘연약한 성[여성]과 그들의 섬세한 생식기관과는 선천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료들이 부르주아 여성의 운명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지만, 실제 소개된 사례들은 하위 계층의 여성들이며, 그들 중 대부분은 국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Nouzeilles 2000:178). 이는 여성, 특히 하위 계층 여성들에게 히스테리의 원인과 증상을 전가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며, 근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 주제로 떠오른 여성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11) Toner(2015:248-250)는 파스쿠알 부모의 유전적 요인이 아들 파스쿠알에 전달되었으며, 이후 주인공이 질투에 눈이 멀어 분노에 찼을 때도 술에 취하고, 이것이 양어머니인 프란시스카를 강간하는 주된 원인으로 설정된 것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이 작품의 설정은 당대 “퇴화이론”(Degeneration Theory)의 영향을 받아 부모의 도덕적 결함이 자식에게 전달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대 맥시코의 근대성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레푸히오가 파스쿠알을 생가하며 욕정에 시달리는 장면이라든지, 프란시스카가 강간을 당하며 성적인 쾌락

을 받았던 질병인 히스테리적 특성을 남성 인물에게 부여하지만, 그 원인, 양상, 의미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파스쿠알의 악덕은 처음부터 부모의 훈육이나 사회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제시된다. 그의 신체적·정신적 결함의 원인 역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된다.

“기력이 다한 남자와 알코올 중독자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가련한 새싹이 어떤 열등한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누가 알았겠는가, 그에게 구원은 헛된 것이 틀림없다-구원은 없다(nulla redemptio). 그의 죄는 대죄이며, 이는 하늘을 울리고 인류의 사슬을 영원히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유일하며 치명적인 죄이고, 어쩌면 무관심한 신성을 모욕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명의 사도들이 꿈꿔왔던 완전한 지적 결함을 방해하며, 존재의 진보와 행복을 회복 없이 정체시키고 막아설 수 있을 것이다.” (Nervo 1920:53-54)

위의 인용에 따르면 파스쿠알은 신체적·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그 어떤 노력을 해서도 구원될 수 없는 존재이다. 특히 근대화되는 사회에선 적용할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도시의 악덕이 낳은 산물로 그려지는 파스쿠알은 지방의 건강한 여성인 레푸히오를 타락시키고자 하지만, 건강한 남성성을 가진 산티아고로 인해 막힌다. 결국 파스쿠알이라는 위협은 농장을 소유한 지방 부호이지만 도시에서 성장한 양어머니 프란시스카를 타락시키고, 그녀를 평생 속죄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든다.¹²⁾

을 느꼈음을 회개하는 장면 등을 통해 파스쿠알의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두 여인(“순결한 아가씨”와 “덕망 있는 미망인”)에게까지 “전염”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 12) 네르보의 첫 번째 소설인 『신학생 Bachiller』(1895) 역시 통제되지 않는 성욕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고, 주인공인 젊은 남성에게 당대 멕시코의 인종적 대표성을 상기시키는 설정을 부여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주인공인 펠리페(Felipe)가 종교에 귀의하기 위해 신학생의 길을 걸으려 했으나 성욕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두던 여성이 접근해 오자 스스로 거세를 한다는 설정은 『파스쿠알 아길레라』와 같이 “과도한 성욕”

Ⅲ. 근대의 타자로서의 여성과 젠더의 공간화

『길을 잃은』과 『파스쿠알 아길레라』는 공통으로 도시와 지방이라는 공간의 구분에 따라 여성을 전형화한다. 『길을 잃은』의 주된 여성 등장 인물은 소작농의 딸인 도나타와 이탈리아에서 온 여배우인 아모리니(Amorini)이다.¹³⁾ 두 여성 모두 안드레스에게 애정 혹은 욕망을 느낀다. 안드레스는 역시 처음에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다가, 성관계를 가진 후엔 금방 권태를 느낀다. 도나타는 아르헨티나 지방 여성의 전형 처럼 묘사되며, 아모리니에게는 당대 라틴아메리카 문학 작품에서 근대성의 상징으로 제시되던 유럽 여배우의 특성이 부여된다.¹⁴⁾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주요 여성 인물은 앞서 언급한 농장 노동자인 레푸히오와 주인공의 양어머니인 프란시스카이다. 전자는 농촌에서 성장하였고, 구체적인 성품을 가진 신체적으로 건강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후자는 종교와 전통에 순응하는 특징을 가졌으나 외적으로는 매력이 없고 허약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다. 프란시스카의 경우, 농장을 가진 전통적인 지방 부유층 가족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그녀는 멕시코 여성들이 “19세기 중반에 교육받던 방식대로” 성장했고, 어린 나이에 들어갔던 학교 역시 “가톨릭 교리, 예절, 그리고 약간의 문법과 산수”로 이루어진 보수적인 커리큘럼만을 제공했던 것으로 제시된다(Nervo 1920:32). 즉 프란시스

을 소재로 기괴한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rwin(2003:101)은 네르보가 이성애나 동성애를 작품에서 다룰 때 보이는 태도를 “성적 구분에 대해 불편함”이라고 평가한다.

- 13) Coddou(1970:347-348)는 이 작품에 내재하는 “팜파와 도시”의 대립이 인물 간의 갈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광활하고 열린 세계”를 후자는 “다채롭지만, 억압적인 세계”를 제시한다. 또한 도나타와 아모리니가 각각 “평야의 전원성(rusticidad campesina)”과 “도시의 인위성”(artificio urbano)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Coddou 1970:350).
- 14) 19세기 라틴아메리카 문화권에서 여배우에 대한 이미지와 이에 대한 문화적 재현은 근대성에 대한 지식인들의 상상력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Oh 2021 참고).

카는 도시에서 생활했으나, 근대화되지 못한 사적·공적 환경에서 교육 받았고,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도시인의 특징인 허약함을 가졌으나 정신적으로 시대착오적 전통성을 가진 인물로 구축된다.

『길을 잃은』의 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도나타는 팜파스를 중심으로 한 지방 문화에서 성장하고, 자연과 가까운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묘사되며, 이는 그녀의 외모와 품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된다.¹⁵⁾

“[도나타는] 얼굴이 검게 탄 남자의 가슴처럼 푸른 빛을 발산하는 길고 굽은 머리카락을 지금 막 뺐었다. 아몬드 모양의 검은 눈은 신비한 근원을 가진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납작하고 사랑스러운 코의 윤곽과 마사모라(mazamorra)의 알갱이처럼 하얀 치아가 만드는 두 개의 열이 보이는 아랫입술을 불안하게 깨물고 있는 입은 거칠지만,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만드는 모든 생김새는 바르브디엔(Barbedienne)의 청동상처럼 매끄럽고 윤이 나며 부드러웠고 이는 토착 여성(china)의 얼굴빛에 더 큰 고상함을 선사하는 듯 보였다.” (Cambaceres 2005:10)

위의 인용에서 서술자는 도나타에게 순수함과 선정성이라는 대조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이는 안드레스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타는 이에 수긍하고 그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때 서술자는 그녀의 수동적인 태도가 지방의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평가한다(Cambaceres 2005:19).

12장에서는 안드레스와 도나타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안드레스가 갑자기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도나타가 이를 슬퍼하며 한탄한다. 이때 안드레스는 도나타가 자신이 떠나기를 바라지 않는 태도

15) Coddou(1970:356)는 이 작품의 서술자가 여성과 팜파를 유비시키고 있으며, 특히 도나타와 직접적으로 동일시된다고 분석한다. 즉 도나타는 “원초적 공간”인 팜파의 상징으로 안드레스를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분석한다.

에 언짢아하는데, 이에 도나타는 안드레스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린다. 안드레스는 아이가 잉태된 것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데 흥미를 느끼지만, 정작 부모의 책임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반응을 하지 못한다(Cambaceres 2005:29). 이는 안드레스가 인간관계에 “적절한” 감정을 느끼지도,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대응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안해하는 도나타를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안드레스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마가 끼인 게 분명해. 그 많은 다른 여자들은 뭐지? 그렇지! 그들은 달랐어.’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무척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Cambaceres 2005:29). 이 대사를 통해 안드레스는 도나타의 “순수함”이 임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아이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도나타의 비극은 안드레스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이자, 도시의 근대성으로 인해 “타락한” 남성이 아르헨티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여성을 짓밟는 알레고리를 구축하는 재료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안드레스의 도덕적 결함 중 타인에 대한 기만과 적절한 감정 대응의 결여가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이는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파스쿠알이 타인에 대한 기만과 사기에 능숙하다는 설정과 유사하다. 두 인물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감정을 느끼고, 이로 인해 일탈적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이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온 안드레스는 극장을 방문한다. 이때, 극장의 외관과 함께, 새로운 작품을 보기 위해 몰려든 많은 인파에 대한 묘사가 제시되는데, 안드레스는 극장주와의 친분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 기다림 없이 배우들이 리허설 중인 공연장에 들어간다. 이 극장에는 마침 이탈리아에서 온 오페라팀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극장 에피소드(1부 14장)에서 안드레스는 이탈리아 배우인 아모리니를 알게 된다. 다른 등장인물과 마찬가지로 서술자는 이 장면에서 아모리니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한다. 이때 서술자는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외적인 특성을 건장한 체구와 열정적인 분위기로 제시한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위풍당당했고, 연극 속 여왕들의 꾸며낸 위엄을 가졌고, 그 속에는 싸구려 장식의 반짝임이 엿보였다. 그녀의 손과 머리는 동료들에게 위엄있는 인사를 건넸고, 과다그노(Guadagno)의 거대한 체구가 돋보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칼을 지녔으며, 날씬하고 예뻐다. 마치 눈구멍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듯한 짙은 눈은 강렬하고 어두운 빛을 뿜어냈다. 두 개의 뚜렷한 다크 서클 자국이 눈을 감싸고 로마 여인의 피가 지닌 모든 불꽃을 드러냈다.”
(Cambaceres 2005:33)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아모리니의 특징은 “로마 여인”이라 표현되는 남유럽 여성의 외모적 특성과 신체적 건강함이다. 앞선 도나타에 대한 묘사에 비해 도발적이며 선정적인 외모가 강조되는 아모리니는 도시의 퇴폐적인 삶을 상징하는 동시에 코스모폴리탄 여성 예술가로, 서술자의 시점에서 주로 성적 매력에 강조된다. 아모리니의 노골적인 유희과 그녀의 관능적인 외모를 묘사한 후 서술자는 안드레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러나 안드레스는, 프리마돈나[아모리니]의 말들을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인 그는, 일종의 자존심이 충족되었고, 동시에 콘트라토[아모리니]의 거칠고 천박한 아름다움에 고양되어, 자신을 목표물로 보이게 하는 눈에 띄는 그 암시에 즉시 대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저 탄탄한 살덩어리는 알잡아 평가할 만 건 아니야’라고 말했다. 사랑 없이, 사랑을 원하지도 않고, 가질 능력도 없이, 육체의 얇은 흥미에 겨우 움직일 뿐이었다. 저 여자나 다른 모든 여자나 결국 다 똑같다.”
(Cambaceres 2005:43)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 안드레스는 아모리니에게 강렬한 욕망을 느낀다기보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험하고자 했던 불특정한 자극을 느끼는 것에 가깝다. 안드레스에게 여성은 실체적 존재이거나 주체이기보다 꾸준한 자극의 원천으로 환원된다. 그는 여성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추구하는데, 끊임없이 욕망하는 연쇄적 과정을 경험한다. 동시에 그는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패하는 주체로 재현된다.

아모리니와의 밀애도 안드레스에게 오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아모리니 남편의 눈을 피해 만남을 갖던 안드레스는 이 밀회가 시작된 지 2주 남짓해서 싫증을 느낀다. 이때 안드레스의 마음 상태를 서술자는 이렇게 진단한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제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고, 그에게 미소 짓지 않았다. 명백히 그 무엇도 그를 이 세상과 이어주지 않았다. 야망도, 권력도, 영광도, 가정도, 사랑도, 그 무엇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그 무엇도 원하지 않았고, 소유하지 않았고 느끼지 않았다. 지상의 쾌락을 누리려는 그의 열정 속에, 그의 미친 열망 속에, 마치 계속해서 연료를 태우며 작동하던 기계가 닳아 버리듯 존재를 움직이던 비밀스러운 모든 동력은 이미 소진되었다.” (Cambaceres 2005:49)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드레스는 독립된 개체로서 아모리니라는 여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기 위해 여성에게 접근한다. 이러한 설정은 사실주의 소설의 서술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Brooks(2005)가 사용한 환유(metonymy) 개념과 유사하다.¹⁶⁾ 안드레스는 욕망의 연쇄 자체가 근대적 서사라는 기호학적 전환을 이해하지 못한 채, 특정할 수 없는 궁극적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는 모순적 주체이다. 즉, 욕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상관없이 연쇄적으로 끊임없이 욕망하는 안드레

16) Brooks(2005:57-58)는 발작(Balzac)의 작품 세계를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와 비교하며 서술적 차이를 제시한다. 전자는 지표적(indexical) 기호이고 묘사되는 대상은 전체를 구성하는 상징 혹은 알레고리적 의미를 갖는다. 즉 문화 체계 내의 기호로서 가지는 의미가 뚜렷하다. 후자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미끄러지는 의미의 연쇄를 제시한다. 즉, 통합적인 의미나 전체로서의 의미 없이 부분을 상세하게 전달함으로써 “존재함”의 분위기 혹은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야콥슨의 개념을 빌려 환유(metonymy)적 서사구조라 설명한다.

스의 유형은, 19세기 말 지식인들이 근대화로 인한 인식론적 변화라고 생각했던 본질과 외양의 불일치에 대한 불안감을 인물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⁷⁾

『파스쿠알 아길레라』에도 파스쿠알과 관련하여 대조적인 두 여인이 등장한다. 이 여인들도 각각 도시와 지방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고 설정된다. 파스쿠알의 의붓어머니인 프란시스카는 파스쿠알과 대조되는 성격으로, 규범을 준수하고 신실한 성품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유난히 절제되고 내성적인 삶은 그 여자아이[프란체스카]를 다소 우울하고 내성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온화하고 미소 띤 우울함, 빅토르 위고가 슬픈 상태의 기쁨이라 정의한 우울함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타고난 선량한 성품에 의해 완화된 신중함이었다. 진정으로 덕성이 있는 모든 존재가 그렇듯 그녀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는 가혹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관해서는 관대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악함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고, 언제나 너무나 선한 사람들과 마주했기 때문에, 분명히 재능에서 태어난 판단이었음에도 충분히 계발되지 않았기에 그녀의 판단은 위안을 주는 낙관주의로 향했다. 그녀는 한 번도 정열이 이끄는 뜨거운 바람에 그녀의 신체를 뒤흔들게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였다. 그녀는 소설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자기 어머니의 조심성으로 인해, 다른 멕시코 가정에서 환대받던 『아탈라』를 읽어본 적조차 없었고, 월터 스콧의 소설이나 『플라비르지니』도 읽지 못했다.” (Nervo 1892:36-37)

17) 첫 만남 이후 아모리니와 안드레스는 여배우 남편의 눈을 피해 밀회를 갖는다. 안드레스는 이러한 종류의 밀회를 위해 자신만의 밀회 장소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상시로 준비하고 있었다. 이 밀회 장소는 겉모양이 허름하지만, 안쪽 공간은 화려하게 치장된 저택이다. 서술자는 이 밀회 장소의 주된 특성이 건물 외관과 내부의 불일치임을 강조한다(Cambaceres 2005:45-46). 이러한 불일치를 아모리니 역시 주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안드레스에게 부여된 기만이란 특성과 인식론적 불안정성이 그가 마련한 건물의 특성에도 나타나게 한 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의 인용에서 강조되는 이 인물의 주요한 특성은 절제된 교육으로 인해 감정, 특히 사랑과 욕망에 관해 학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파스쿠알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된다. 프란시스카의 이러한 성품을 결정한 요인은 크게 교육 방식과 타고난 품성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환경에서 자라났고, 타고난 기질 역시 이러한 교육 방향에 부합했다. 프란시스카는 남편의 사생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파스쿠알을 친자식처럼 보호한다. 하지만, 전통과 종교에만 중점을 맞춘 교육환경은 프란시스카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데, 이는 파스쿠알의 위험성을 충분히 깨닫지도 못했을뿐더러 적절한 훈육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경우에 주인공 파스쿠알이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일탈”의 원인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의 대가로 신경 쇠약에 시달리는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자 생모의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양어머니 프란시스카의 “적절치 못한 대응”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Nervo 1920:43-44). 여기서 특기할 만한 설정은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통적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카가 파스쿠알의 문제를 인지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주체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길을 잃은』에서도 안드레스의 성장 과정에서 주된 문제점은 어머니의 잘못으로 제시된다. 엄한 아버지가 이들의 방탕함에 벌을 주려 할 때 어머니가 개입하여 안드레스를 보호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는 안드레스가 절제를 배우지 못하게 만든 주된 원인으로 제시된다(Cambaceres 2005:6).

『파스쿠알 아길레라』에서 멕시코의 지방 여성을 상징하는 레푸히오는 건강하고 자립적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레푸히오는 도나타처럼 자연과 밀접한 삶에서 기인한 생기있고 관능적인 외모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지만, 능동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정말 예뻐지! 관자놀이에 흑옥으로 만든 나선 장식처럼 우아하게 말려있는 검은 곱슬머리에, 과달루페 성모의 갈색 피부에 타원형 얼굴을 가진, 벨벳 같은 눈에는 젊음의 기쁨이, 삶의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독수리처럼 우뚝 솟은 코는 경이로울 정도로 윤곽이 뚜렷했다. 작고 관능적인 붉은 입술과 애나멜 빛의 자가 같은 촉촉한 치아와 보조개가 있는 턱이 가졌다. 늠름한 가슴에는 청춘의 젖가슴이 이미 솟아나고 있었고, 몸의 윤곽은 유려한 조화로움을 가지고 시선을 어루만지는 넓은 엉덩이에 지지되고 있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Nervo 1892:23)

이 작품에서 메스티소의 외모적 특성이 강하게 부여된 레푸히오의 관능미는 도나타의 경우보다 더 강조되는데, 이는 두 인물을 묘사하는 서술자의 의도와 서술 시점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즉, 캄바세레스의 작품과 비교하여 네르보의 작품은 서술자가 욕망의 대상인 여성을 묘사할 때 훨씬 더 상세하고 관능적으로 묘사하며, 병리적이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등장인물의 시선과 서술 시점을 거의 일치 시킨다. 특히, 2부 2장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농장 건물에 임시로 머무르던 레푸히오의 방을 산티아고가 몰래 엿보는 장면에서, 서술자 역시 레푸히오의 육체를 관능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독자에게 파스쿠알의 시점에 가깝게 전달한다.

“그녀가 염담당하고 있다는 걸 의심한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잠시 후 계속해서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허리에 손을 가져가며, 치마를 조이던 매듭을 재빨리 풀었다. 치마는 그녀를 원으로 된 천을 만들며 감싸고, 그녀의 발 주위에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다. 그녀는 민첩하고 원을 넘어 옷을 집어 들며, 옷걸이에 걸기 위해 갔다.”
(Nervo 1920:75)

서술자는 관음적 상황에 있는 파스쿠알과 일치된 시선으로 레푸히오의 육체를 관찰하며, 이는 다른 장면들에서 서술자가 파스쿠알의 일탈과

병증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구조와 대조된다. 『길을 잃은』에서도 안드레스의 내면을 관찰할 때 서술자는 안드레스와의 거리를 일시적으로 좁히고 이 인물의 염세적인 내적 갈등을 전달하는데, 이는 일견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서술자와 유사하면서도 대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Nouzeilles(1997:150-151)은 자연주의 소설이 질병 담론의 구조를 전유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그들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타자화) “퇴화된 주체”를 재현한다면, 모데르니스모 서사는 자신 혹은 동료의 몸을 주변부화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길을 잃은』이 자연주의적 성향이 강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스의 내적 갈등을 인물의 관점과 가깝게 서술한다거나, 모데르니스모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네르보가 파스쿠알을 대상화하는 서술적 특징은 두 작품 모두 각 그룹의 전형적 유형이라기보다 중간자적 특성을 가졌음을 보여준다.¹⁸⁾

『길을 잃은』과 『파스쿠알 아길레라』에는 공통으로 주인공을 포함하는 삼각관계가 등장한다. 전자의 구성원은 안드레스, 아모리니, 그녀의 남편 고리니(Gorini)이고, 후자에서는 파스쿠알, 레푸히오, 그녀의 약혼자이자 산티아고이다. 『길을 잃은』의 공간은 14장부터 팜파스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바뀐다. 고리니는 안드레스가 아모리니와 처음 만날 때 등장하는데, 그의 외모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그는 젊었고, 백인이었으며, 활기에 차 있었고, 잘생겼으며, 꼬아 올린 검은 콧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카보우르(cavours) 담배를 피웠고, 깊게 파인 옷깃이 있는 셔츠를 사용했다. 또한 체인에 산호로 만든 뿔 장식을 매달고 다녔다.” (Cambaceres 2005:34) 이 남성의 묘사에는 아름다운 외모에 화려한 옷차림이 강조된다. 그는 육체와 정신의 능력이 균형 잡힌 남성성을 상징한다기보다는

18) Domínguez-Ruvalcaba(2007:20-21)는 네르보의 이 작품이 자연주의의 영향이 모데르니스모 작품에 나타난 예시로 제시했다. 그는 이 작품이 “남성의 성적욕망이 사회적 규범의 통제 밖에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평가한다. Clark(2009:55-56)는 『길을 잃은』이 다양한 측면에서 모데르니스모적 특징을 가졌다고 분석한다.

외모와 복장을 통해 젠더를 수행하는 댄디즘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다. 안드레스는 고리니에게 자신이 사교모임을 선호하며, 특히 프로그레소 클럽(Club del Progreso)과 같은 상류층 남성 커뮤니티의 일원임을 밝힌다(Cambaceres 2005:35). 프로그레소 클럽이 당대 아르헨티나 사교계에서 점유하던 위상을 고려할 때, 안드레스의 사회적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다. 고리니가 프로그레소 클럽에 회원으로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며 둘 사이에 유대가 생기는데, 이는 19세기 문학 작품의 삼각관계가 남성 간의 유대를 강조하고 사회 주체로서의 남성의 배타적 위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음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리니는 안드레스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히는데, 특히 근대적인 특성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다른 도시보다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 건물들의 아름다움, 거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음, 오고감, 상점들, 그들의 경적 소리에 맞춰 실재 없이 교차하는 전차들이, 이 외국인[고리니]에게 낯설고 흥미로운 인상을 느끼게 했소. 우리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도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느낌이었소.” (Cambaceres 2005:35) 이탈리아인의 눈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새로움에 기반한 근대성의 이미지로 비치며, 동시에 이탈리아는 오래됨의 이미지로 구축된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탈리아의 젊은 남성과 아르헨티나의 상류층 남성이라는 설정으로 유럽과 신대륙 남성의 연대나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듯했으나, 이어진 안드레스의 기만으로 이 관계는 불륜의 도구로 축소된다. 고리니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안드레스는 곧장 아모리니 부인을 유혹하며, 고리니와 그의 관계는 새로운 성적 자극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된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열망(아모리니와의 불륜)은 안드레스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통해 유럽의 댄디(Dandy)보다 근대성과 관련해 우월한 발화 위치를 점하면서도, 동성사회성(homosociality)을 통해 새로운 국가 주체성을 보여주는 데 이르지 못하게 한다.¹⁹⁾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경우 파스쿠알이 레푸히오에게 품는 욕망과 산티아고에게 품는 질투는 주인공이 비극적인 파멸을 맞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길은 잃은』에서 고리니와 안드레스의 경쟁 관계가 주인공의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에 치중된 것에 비해, 서사 흐름에 갖는 중대함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가장 첫 장면에서 파스쿠알은 결혼에 대한 약속 없이 성관계만을 맺고자 레푸히오를 설득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언짢아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곧바로 산티아고가 등장한다.

“그는 매우 키가 큰 젊은 청년이었고, 햇빛과 바람에 그을린 채 피부부를 가진 외모에 거만한 인상이었다. 생기있고 검은 눈을 가졌고, 헝클어진 긴 머리에, 순진한 미소로 항상 벌어진 두툼하고 수염이 없는 입술을 가졌다. 가족 옷에 트인 바지 뒷개를 입었고, 그 사이로 깨끗하게 풀을 먹인 황실 풍의 속바지(los calzones de imperial)가 드러나 보였다.” (Nervo 1920:27)

위의 묘사에서 산티아고의 건장함이 강조되는데, 이는 신체장애가 있고 생기 없는 외모로 묘사되는 파스쿠알과 대조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파스쿠알은 이성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성욕에 괴로워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남성성(Hypermasculinity)”으로 묘사되기보다 여성화된 남성성에 가깝게 표현된다.²⁰⁾ 이 작품의 주요 플롯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 Esposito(2005:37)는 도나타를 강간하여 그의 아버지인 레히노가 농장을 떠나고, 아모리니와의 불륜으로 그의 남편 고리니가 떠나는 장면을 해석하며, 이 소설이 안드레스가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늙은 농부”와 “외국인”을 축출하게 하는 구조를 보인다고 말한다. 결국 혼자 남은 안드레스 역시 딸의 죽음과 노동자의 방화로 몰락하게 된다. 이는 삼각관계를 통해 남성 사회성을 구축하는 구조의 전복이라고 할 수 있다.

20) 펠리페가 거세하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순시온(Asunción)은 펠리페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이는 당대의 시각에서 생각했을 때, 남녀의 주체성이 전도된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rwin(2003:100)은 이 작품의 아순시온을 “남성적 기질을 띤 여성(tomboy)”이라고 묘사한다.

레푸히오에게 거절당한 파스쿠알이 양어머니인 프란시스카를 성폭행하고 이후 정신 착란의 결과로 급사하는 것이다. 2부에서 등장하는 레푸히오와 산티아고의 결혼식 피로연은 주인공의 죽음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 결혼한 부부의 춤추는 모습을 보며 파스쿠알의 질투와 욕망은 극에 달한다. 서술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상실이 더 임박할수록 그 시골 처녀는 더 매혹적으로 보였다. 고통과 흥분에 뒤죽박죽된 그의 뜨거워진 상상 속에서 수없이 옷을 벗었다. 레푸히오가 산티아고와 초야를 치를 것이 분명한 그 날, 파스쿠알의 억눌린 성욕은 이미 끔찍한 성적 과민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Nervo 1920: 90). 건강하고 능동적인 메스티소 여인 레푸히오는 이 작품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되지만, 파스쿠알은 이 여성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는 실현되지 못한 욕망을 가장 금기시되는 대상인 어머니에게 돌리는데, 이러한 설정은 파스쿠알이 근대 멕시코 사회 혹은 “인간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IV. 이야기 기능: 쾌락과 교육

『길을 잃고』의 25장에서 이전까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안드레스는 불현듯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을 한다. 이 변화의 동기는 아모리니에 대한 싫증을 넘어 그녀를 혐오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연인에 대한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되는 관계에 대한 단순한 싫증이 원인으로 묘사된다. 이후 안드레스는 도시에 대한 염증을 느끼며, 도나타와 자신의 아이를 떠올린다. 동시에 자신의 방탕한 삶과 이로 인해 재산을 탕진한 것도 후회하게 된다(Cambaceres 2005:63). 부모가 자녀야 할 책임감과 애정을 갖게 된 것이 그동안 그를 괴롭혀온 회의주의와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그의 재산 상황은 재정 수입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
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그림이 더 짙어지고 있으며, 정신이 멍한
상태의 슬픈 시간이 주는 쓰라림이 더 증대하고 있었다. [중략] 산산
이 부서지고, 근간이 무너진 채, 피로에 무릎을 꿇은 탈진한 영혼이,
죄책감의 무게 아래, 그가 가지지 못한 아들에 대한 집착에 쫓긴 채,
그가 30년 동안 비참하게 허비한 삶에 대한 의식을 가지자 그것은
곧 저주처럼 그의 위에 무너졌다.” (Cambaceres 2005:63)

위의 인용은 안드레스가 자신의 잘못이 아이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아이를 보기 위해 고향에 있
는 농장으로 긴급히 돌아오는 여정이 묘사되는데, 이때, 예기치 않은 폭
우로 죽을 고비까지 넘기며 도나타의 집 앞에 도착한다. 마치 그동안의
잘못을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통과 의례를 치르는 듯한 이
설정은 독자에게 타락하고 퇴화된 도시의 화려함에 찌든 존재가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29장에서 서술자는 안드레스의 심경을 다음
과 같이 상세히 제시한다.

“결국 오두막(rancho)을 바라보며 거기에 빨려 들어간 듯 움직이
지 채, 심장을 요동치고, 목이 조여오며, 감정의 세계가 무기력하게
잠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란스럽게 깨어난 듯했다. 그는 그간
울 수 없었고 어떻게 우는지조차 몰랐던, 불신자였던 그가, 바로 그
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Cambaceres 2005:70)

위의 인용은 이전까지 안드레스가 겪던 문제의 핵심이 인간관계에
대한 적절한 감정 대응의 결여임을 보여준다. 안드레스의 감정 결여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즉 그를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 모두에서 독립
적 개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주체로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된다. 안드레
스의 이러한 “미숙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현듯 찾아온 부모로서의
의무와 애정을 깨닫는 순간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죽을 고비를 겪고

농장으로 돌아온 안드레스는 오디세우스처럼 그동안의 과오를 씻을 고난을 겪고 고결한 가치를 회복한 영웅의 모티브와 유사하다.

농장에 도착한 안드레스는 도나타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며, 딸만 남겼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튿날 처음으로 딸을 본 안드레스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길 결심한다. 하지만 1권의 끝은 이 소설이 안드레스의 갱생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남긴다.

“그리고 저 괴물 같은 여자 손에 그녀의 딸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는 그것을 견뎌내야 하고, 그녀가 그런 상태 있는 것을 내버려 뒀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막아야 한다. 저 어린아이를 그곳으로부터 꺼내야 한다. 그녀를 데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함께 돌아갈 것이다. 적어도 의사가 있는 곳으로, 그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쉬운 곳으로. 문득, 안드레스는 페파 이모가 떠올랐다. 그녀는 안드레스의 친척 중 한 명이었고, 어머니의 여동생이었다. 항상 그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여주었다. 나이 든 미혼 여성의 그러한 애정은 자식들에게는 쓸 수 없기에 조카들에게 떨어지게 된다.” (Cambaceres 2005:82)

이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산파가 도나타의 출산 및 산후 관리를 담당했고, 이후 자신의 딸까지 민간전승에 기반한 방법으로 돌보려는 것에 대한 안드레스의 강한 거부감이다. 이는 의학 지식으로 대변되는 근대성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팜파 지역의 후진성을 그린다. 이전까지 안드레스에게 염세적 삶의 태도와 방랑한 삶을 살게 한 주요 요인으로 등장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근대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드레스는 자신의 이모가 딸을 돌봐주는 전통적인 여성의 육아가 도시의 근대적 삶보다 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에 남는 선택을 한다.

작품의 2부는 1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2년 남짓 시간이 흐른 시점을 다룬다. 평화로운 분위기 묘사로 시작하며, 서술자는 안드레스의 변화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의 푸르고 큰 눈은 이제 그의 영혼 상태를 충실히 반영하여 교차하면 발산하던 슬프고 음산한 빛을 발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타고난 표현을 바꿨다. 또한 죽은 물을 통해 그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그 영혼 안에 갇혀있던 신비를 꿰뚫을 수 있을 것처럼 그 눈은 고요한 투명함을 보였다” (Cambaceres 2005:83). 이 장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안드레스의 우울한 기질이 더는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후, 이 아이를 통해 안드레스에게 일어난 변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그의 딸, 그의 안드레아,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딸, 그녀의 출현만으로도, 그녀의 탄생만으로도 그에게, 높고 신장심도 없는 그에게, 삶에 지친 그에게, 다른 삶의 비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존재의 비밀을 드러내기 충분했다. 그의 삶에도 고통은 있다. 왜냐하면 운명은 곧 고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을 받으며 행하고 놓아둔다. 그리고 놓아둔 채 기쁨을 느낀다.” (Cambaceres 2005:83-84)

딸의 외모 묘사도 제시된다. 크리오요와 메스티소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유추할 수 있는 안드레아의 외모는 아름답게 묘사되며, 아버지와는 다르게 감정이 풍부한 성격으로 제시된다.

“그의 딸은 동요한 채 다가왔다. 그녀는 불안하고, 감정이 북받쳐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가진 변함없는 침착함과 그녀의 태도는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메소니에(Meissonnier)가 그린 윤곽처럼 완벽한 그녀의 갈색빛 작은 얼굴은 백년초 무화과 같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며 빛나고 있었다. 그 눈은 크고 마찬가지로 푸르렀다. 속눈썹이 만든 검은 색 테두리에서 사파이어 같은 푸른색이었다.” (Cambaceres 2005:83)

안드레아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안드레스는 이전 삶과는 다른 불안에 시달린다. 이는 이전에 안드레스가 겪었던 허무주의 혹은 염세주

의와 비슷한 논리구조를 보여준다. 그는 안드레아가 성장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상상한다.

“그리고, 종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에 움직여, 개인의 선을 목적의 성취를 위해 미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맹목적이고 운명적으로 열정에 휩쓸리게 되면, 어떤 조건도 유보도 없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게 된다면, 그 후에 그녀는 어떻게 될까? 늦든지 빠르든지 버려지고 외롭게, 환멸의 쓴 잔을 비울 운명이 주어질 텐데, 가차 없고 잔인한 그 힘에 버려져 그녀의 위대하고, 고귀하며 숭고한 희생 뒤에 무엇이 남게 될까? 없다. 심지어 서투르고 거친 육체적 욕망에 대한 만족도 남지 않을 것이다.” (Cambaceres 2005:86-87)

안드레스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여성으로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을 위와 같이 가정할 뿐 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의 어려움을 상상하며, 안드레아의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결국 앞선 안드레스의 변화는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안드레스의 과민증 혹은 불안의 연쇄는 계속되고 있었다. 안드레아로 인해 안드레스의 병증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안드레아 역시 안드레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원천으로 환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드레스가 끊임없이 안드레아의 미래를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아는 크룹(Crup)에 걸려 죽을 위기를 맞게 된다. 가까스로 근처에 머물던 의사를 데려와 여러 가지 처방을 해보지만 결국 안드레아는 죽음을 맞게 된다. 안드레스는 이에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그에게 원한을 가진 농장 노동자가 마침 농장에 방화하자, 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서술자는 태어날 때부터 통제할 수 없는 성욕에 시달리는 파스쿠알을 일정한 거리를 두며 묘사하는데, 이는 철저한 흥미 위주의 관찰에 가깝다. 서술자가 파스쿠알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푸히오를 비롯한 여성의 몸을 성적 시선으로 관찰하거나, 성적 욕망으로 인해 파스쿠알이 병적인 분노에

빠졌을 때이다(Nervo 1920:91). 이 역시도 횡수나 분량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결정적으로 이 작품은 『길을 잃은』처럼 주인공 내면의 고뇌나 실존적 고민을 거의 서술하지 않는다.

주인공의 비참한 죽음에 초점을 맞춘 『길을 잃은』과는 다르게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대단원은 주인공의 죽음을 하나의 영적 해방으로 묘사한다.

“그 미소, 자연과 끈적한 액체를 흐리게 했던 그 유리 같은 눈이 보내는 고정된 시선 앞에 거대한 체념의 태도, 변하지 않는 것의 말 없는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듯 보였다. ‘나의 물리적 존재를 구성하는 힘의 우연한 결합체는 이제 분리되었도다. 알 수 없는 충동과 유전적 기질들은 나를 첫째로는 음욕으로, 다음에는 죽음으로 이끌었다. 나는 이상을 좇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내 영혼에는 이상이 움크릴 수 없는 작은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적 필요는 나는 쾌락에 길들이게 몰고 갔고, 그 속에서 갈증에 찬 열망을 해소했다. 지금은 더 욕망하지 않는다. 더 전율을 느끼지도 탐욕이 나를 괴롭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부패에게 말한다. ‘너는 내 어머니다’. 그리고 구더기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내 형제자매들이다’ 그들은 내 살을 먹고 자라고, 그들 역시 죽게 될 것이다. 대지라 불리는 지치지 않는 이 일꾼과 힘이라 불리는 변화시키는 자에게 나의 무언가를 전하며 말이다.” (Nervo 1920:121)

파스쿠알이 죽은 이후에야 서술자는 이 인물의 시각에서 내면의 생각을 서술한다. 또한 이 죽음은 자연계 순환의 일부로 특이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묘사된다. 죽음 이후에야 서술자에 의해 내면이 전달되는 파스쿠알의 위치는, 의학 담론의 의사-환자 관계가 보이는 권력의 비대칭보다, 훨씬 서술자에 종속적이고 수동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아버지 세대가 도

21) Nouzeilles(2000:185)는 히스테리 환자와 의사 사이의 권력관계에 주목하는데,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이 가진 건강한 정신에 대한 허구적 이미지를 강요하

시에서 부를 탕진하며 저지른 일탈은 파스쿠알의 육체적·정신적 비정상성을 초래했으며, 이는 그를 치유나 회복의 여지 없이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운명으로 이끈다. 오히려 남아 있는 주체는 이러한 과오를 떠넘겨 받아 속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시대착오적 특성의 여성이며, 이 역시도 사회적 주체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없는 고립된 삶이 예정된 것으로 그려진다. 이 작품에서 네르보에게 지방은 이야기의 쾌락을 극대화할 공간적 배경으로 환원되며, 도시는 그러한 쾌락을 강화해 줄 특이한 서사 사례를 구성하는 주요한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길을 잃은』과 『파스쿠알 아길레라』에서 주인공의 비극에 관한 서술자의 발화 위치 차이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이야기의 기능을 다르게 파생시킨다. 『길을 잃은』에서 안드레스의 비극성은 딸인 안드레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으나, 자신의 노력 및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했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이로 인해 안드레스는 “바른” 길로 돌아갈 뻔했으나 좌절된 인물로 그려진다. 안드레스는 팜파의 자연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도나타와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안드레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으나, 이를 모두 놓치고 만 것이다. 도나타와 안드레아 죽음은 모두 적절한 의리적 치유를 받지 못하게 만든 지방의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근대화로 인해 경제체제가 변화했지만, 완전히 근대화되지 못한 지방의 “야만성”이 아르헨티나의 상류층을 대변하는 안드레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위협으로 그려진 것이다. 안드레스를 타락시킨 도시와 도나타가 나고 자란 지방은 절대적으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이러한 공간적 설정은

고 이는 환자의 저항과 맞부딪혔다고 주장한다.

근대화로 인한 이익과 부작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서술자의 능력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서술자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안드레스를 통해 기의와 기표의 괴리가 심화되는 근대성의 핵심적 특성을 서사화하면서, 정작 이를 깨닫지 못하고 욕망의 대상을 고민하며 비극으로 치닫는 안드레스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근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담지자의 위치를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파스쿠알 아길레라』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계기를 부여받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마지막 장면의 서술 시점이 피해자인 프란시스카에게 집중됨으로써 주인공은 사라져야만 하는 사회적 악덕으로 그려진다. 이때 파스쿠알은 이상 성욕에 시달리는 특이한 사례로 환원된다. 또한, 레푸히오의 육체를 관음적 설정을 통해 소비할 때나 파스쿠알의 광란이 흥밋거리처럼 묘사될 때만,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서술적 거리가 가까워지며 독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이야기의 오락적 기능을 강화한다. 이 작품의 서술자에게 근대성은 파스쿠알의 비정상성으로 대변되는 흥미로운 병리적 사례를 구성하는 재료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한 남성성”의 전형은 끊임없이 성적 대상을 추구하는 “여성화된 남성”이라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전복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길을 잃은』과 『파스쿠알 아길레라』의 비교는 세기말 라틴 아메리카에서 도시와 지방이 근대성을 판가름하기 위해 “문명과 야만”으로 환원되는 고정된 기호가 아니라, 서술자의 서사 위치에 따라 변화하며 서사 전략의 주요한 재료로 활용되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은경(2015), 「La Búsqueda de la Identidad de los Criollos Argentinos en Sin Rumbo y ‘El Aleph’」, 『라틴아메리카연구』 28:1, 125-140.
- Aching, G.(1997), *The Politics of Spanish American ‘modernismo’: By Exquisite Desig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oks, P.(2008), *Realist vi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rand, I. D.(2007), “Una aproximación a la representación de campo y ciudad en Sin Rumbo de Eugenio Cambacerès,” *Presente y pasado*, 12(24), 365-378.
- Cambaceres. E.(2005), *Sin rumbo*, ed. J.P. Spicer-Escalante, Buenos Aires: Stock Cero.
- Clark, Z.(2009), “Rasgos naturalistas y modernistas en Sin rumbo (1885) de Eugenio Cambaceres,” *Hispanófila* 154, 47-58.
- Coddou, Marcelo.(1970), “Significación del espacio en Sin rumbo de Eugenio Cambaceres,” *Universidad* 81, 339-361.
- Domínguez-Ruvalcaba. H.(2007), *Modernity and the Nation in Mexican Representations of Masculinity: From Sensuality to Bloodshed*. New York: Springer.
- Esposito, F.(2005), “Sin rumbo de Eugenio Cambaceres: escenas de la vida rural. Género gauchesco, novela y modernización literaria,” *Iberoamericana* 20, 27-38.
- Irwin, R. M.(2003), *Mexican masculinit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Irwin, R. M.(2006), “Lo que comparte el positivismo con el modernismo mexicano: el hermafroditismo, la bestialidad y la necrofilia,” *Signos literarios* 2(4), 63-80.
- Jrade, C. L.(1998), *Modernismo, Modernity and the Development of*

- Spanish American Literatur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Micale, M. S.(2008), *Hysterical Men: The Hidden History of Male Nervous Illn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ervo, A.(1920), *Pascual Aguilera. El donador de almas. Obras completas de Amado Nervo Volumen VI*. Madrid: Biblioteca Nueva.
- Nouzeilles, G.(2003), “An Imaginary Plague in Turn-of-the-century Buenos Aires: Hysteria, Discipline, and Languages of the Body,” in *Disease in the History of Modern Latin America: From Malaria to AIDS*, ed. by Diego Armus,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51-75.
- Nouzeilles, G.(2000), “La plaga imaginaria: histeria, semiosis corporal y disciplina,”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26(52), 173-191.
- Nouzeilles, G.(1997), “Narrar el cuerpo propio. Retórica modernista de la enfermedad,” *Estudios: revista de investigaciones literarias* 9, 149-176.
- Nouzeilles, G.(1996), “Pathological Romances and National Dystopias in Argentine Naturalism,” *Latin American Literary Review*, 24(47), 23-39.
- Oh, M.(2021), “Espectacularidad y género: dandis y actrices en las obras de Manuel Gutiérrez Nájera,” *Bulletin of Hispanic Studies* 98(2), 179-193.
- Toner, D.(2015), *Alcohol and Nationhood in Nineteenth-century Mexico*,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ABSTRACT

Modernity's Others
: Sexuality and Space in
Sin Rumbo and *Pascual Aguilera*

Minwook, Oh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two novels: *Sin rumbo* (1885) by Eugenio Cambaceres, a leading Argentine naturalist, and *Pascual Aguilera* (1892) by Amado Nervo, a key figure in Mexican *modernismo*. Through a careful analysis of the intermediary positions held by the central characters in both works—situated between the traditional establishment and the emerging urban elite—this study explores the narrator's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ity and national modernity. Specifically, it demonstrates how the represen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a central issue in Latin American modernization—serves as a fictional criterion for delineating the normal and abnormal, grounded in the discourse of disease. Furthermore, it examines the construction, expansion, and eventual collapse of the schema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 Ultimatel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epresentation of modernity, space, and sexuality is a key narrative strategy that highlights the role of each novel in the national project envisioned by its author.

Keywords: naturalism, Modernismo, disease discourse, sexual deviance,
city and rural areas

156 비교문화연구 제76집(2025.10)

- 논문투고일 : 2025. 09. 10
- 심사완료일 : 2025. 10. 04
- 게재확정일 : 2025. 10. 07